

# 내년 4월 봉선시장에 대형 주차타워 문 연다

### 사업비 47억원 투입해 6개월간 지상 3층 건립 주차공간 '44면→106면' 3배 증가 접근성 향상

내년 상반기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 대형 주차타워가 문을 연다.

광주 남구는 10월 31일 "봉선시장 주차난 해소 및 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차량 10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는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는 10월 31일 첫 삽을 시작으로 6개월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봉선시장 주차타워는 시장 상인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남구는 숙원 해소를 위해 국비 확보 등에 상

당한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확보 등 큰 난관을 극복하며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나서게 됐다.

특히 시설계획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사업비 20억여원으로 공사를 나설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재비 및 물가가 크게 상승해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인 것은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 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한 뒤부터다.

남구는 사업비 30억원에 구청 재원 17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사업비 47억원을 마련, 내년 4월까지 지상 3층 4단 구조의 주차타워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곳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주차공간이 기존 44면에서 106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시장



상인을 비롯해 방문객들, 인근 거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차공간 부족에서 비롯된 도로변 무단 주차와 차량 소통 장애 문제도 한꺼번에 해소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접근

성 향상으로 봉선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우리 상인들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그동안의 시련을 극복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전남도,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12월말 마감

전남도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지역 어업인들의 갱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남지역 허가 대상은 근해자망,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등 16개 업종 575건이다. 세부적으로 도가 14종 507건, 시·군은 2종 68건이다.

허가 갱신은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허가처분청인 전남도와 시·군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허가갱신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연안을 끼고 있는 16개 시·군에 '근해어업허가 신청 대형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도청 소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편리하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신청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기존에 발급받은 어업허가증(카드 2매), 선적증서 또는 국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어선원부 등 5종류다.

수수료 4500원을 함께 제출하면 전남도는 제출서류 검토 후 갱신된 허가증을 발급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올해 광주 찾은 관광객 대폭 증가...거리두기 해제 영향

올 3분기까지 광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64% 늘어 난 432만3977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광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 해 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하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중 광주지역 3분기 관광객 수는 155만7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83만2911명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관광객 수는 432만 3977명으로, 지난해 동기 263만1551명 대비 64%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주시 42개 주요관광지점 중 영산강문화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광주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지점 특성별로는 ▲생태관광 61만 명 ▲마이스(MICE)관광 28만 명 ▲전시·박물관 28만 명 ▲체험관광 15만 명 ▲역사관광 10만 명 ▲문화예술 5만9000명 ▲생활관광 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유형 변화도 관찰된다. 지난 9월 기준 지역 관광호텔 4곳의 평균 객실 이용률은 45%로, 2020년(37%)과 2021년(41%)에 비해 상승했다.광주시 관광객 유치 보충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관광객 숙박일 수 합계는 2557박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은 880박, 2021년은 965박이었다.

최이슬 기자

#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물 동결·동파 종합대책 마련



수도계량기 전체 13만7000개 사전 점검  
기동처리반 편성 24시간 신속 대응 계획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등 수도시설물 동결·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2022 동절기 급수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으며, 기온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상수도 시설물의 동파가 우려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기 전인 이달 한 달 동안 지역 내 수도계량기 전체 13만7000개에 대해 사전 점검에 들어간다. 동파민원이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각 수도사업

소별 2개 기동처리반을 편성, 24시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대처가 중요한 만큼 동파 예방요령 홍보물 12만5000부를 제작, 가정에 배포하고 홈페이지·구보·통장단 회의 등을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동파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21번, 휴대전화의 경우 062-121번으로 신고하면 기동처리반의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 광주 광산구, 관내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전수조사

광주 광산구가 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운영 및 아동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광산구 어린이집 등 총 328곳이다.

광산구는 CCTV 설치 기준 준수, 정상작동 및 영상정보 대장관리 여부 등 기본적인 관리 상황과 더불어 아동학대 징후, 급식안전 등 아동안전과 관련한 부분까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의 CCTV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치해 안전한 보호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전남도, 부산·경남 공동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지속가능 탄성소재 개발로 글로벌 시장 선점 기대

전남도는 탄성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해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건의한 2천304억 원 규모의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성소재 재도약사업은 탄성소재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전남·부산·경남 지역에 밸류체인 연계형 실증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실

시하는 기술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예타 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을 통해 전남에는 탄성소재 원소재 및 기능성 소재 실증용, 부산에는 탄성소재 중간체 가공 및 시험분석용, 경남에는 탄성소재 부품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및 기업지원용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탄성소재 사용범위가 확장되고 기존과는 다른 고성능 탄성소재 개발과 유럽연합(EU)의 100% 타이어 재순환정책,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고무 공급 불안정 등 대내외적 요인은 지속가능 탄성소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기부 주관으로 자문위원회의 연구진으로 구성해 6개월이 소요되며 기초조사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탄성소재 재도약사업은 전남(원소재)-부산(중간체)-경남(부품)의 지역 대표 주력사업 간 가치사슬을 연계해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를 위해 산업부, 부산·경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합의 12%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